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3면

홍해 위기
4~5면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12~14면

〈나의 올드 오크〉
영화평
15면

늘봄학교
전면 시행
16면



적동의 세계, 그러나 선거에 매달릴 일 아니다

투쟁이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은
계속된다



포럼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해방을 위한 투쟁'

다국적 발제자·청중이 더 넓은 전망을 놓고 토론하다

1월 21일 서울 성동청소년센터 1층 무지개극장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포럼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해방을 위한 투쟁'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매주 열리고 11월부터는 인천·부산·수원·울산으로 확대됐다.

이날 포럼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이 팔레스타인 저항의 의미를 다시금 짚어 보고,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과 전략을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건설에 앞서 온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집트인들이 노동자연대 활동가와 함께 발제자로 나섰다.

200석이 넘는 강당이 한국,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일랜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또, 서울, 인천, 수원, 울산, 부산, 양산 등 여러 지역에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다. 청중 토론 시간에는 발언 신청자가 너무 많아 부득이 수를 제한해야 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동자연대는 전문 통역사들의 영어·아랍어 동시통역 및 한국어 순차통역을 제공했다. 덕분에 언어의 장벽 없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다.

뜨거운 연대 분위기

첫 번째 시간은 팔레스타인의 저항 역사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리만 씨는 베들레헴 난민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듣거나 직접 겪은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 오슬로 평화협정과 '국제 사회'의 개입이 아무 변화도 낳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변화시켰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국제적 연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흐 씨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할아버지, 삼촌, 외숙모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건물



200석 넘는 규모 행사장이 국내외 청중들로 가득 찼다

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살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저항 정신만큼은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동적으로 연설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살레흐 씨는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의 공생 역사를 낱알이 짚었다.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는 1987년 1차 인티파다가 중동 전역에서 연대 시위를 촉발했고, 2011년 아랍 혁명 때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려면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질서를 지탱하고, 혜택을 보고, 그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 정권들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청중 토론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힌 한 미국인 참가자가 최근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해 커다란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아일랜드인 참가자는 "아일랜드도 4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과 큰 공통점이 있다"며, 그런 역사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매우 각별하게 여긴다고 발언했다.

중요한 쟁점도 제기됐다. 팔레스타

인 저항 운동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란을 촉구하거나 촉발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가, 즉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나 하마스의 '주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이 옳은가 하는 물음이 제기됐다.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략이 국제주의적이어야 하느냐 민족주의적이어야 하느냐는 쟁점이었다.

해방 전략을 둘러싼 토론

두 번째 시간 '내가 경험한 이집트 혁명과 팔레스타인'에서는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여했던 마으준 씨와 알리 씨가 발제자로 나섰다. 두 발제자는 이집트 혁명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군부의 혹심한 탄압을 피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정치 난민이다.

두 발제자는 모두 이집트 혁명의 여파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국경의 라파 검문소가 (일시적으로) 개방돼 가자 지구에 구호품과 이집트 혁명가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며, 이집트 혁명이 활짝 보여 준 팔레스타인 해방의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마으준 씨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아랍의 독재 정권들에 맞선 저항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정부에게서 무기를 지원받아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아랍 국가의 지배자들이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리 씨는 "[서방 제국주의가] 아랍의 부와 자원들을 훔치기 위해 [아랍을 식민지로] 점령했고 이 목적하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이 점령당하고 있는 한 아랍 대중도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청중 토론에선 이집트 혁명이 보여준 영감과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낳을 정치적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발언이 여럿 있었다.

이집트 혁명에 등장했던 무슬림형제단 무르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쟁도 있었다. '심층국가'인 군부의 방해로 인해 무르시 정부의 실수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르시 정부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와 사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물론 토론과 논쟁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이뤄졌고, 아랍에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살라후딘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도 발언을 했다. 그는 '1.13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한국 집회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그 의의를 강조하는 감동적인 연설로 시위대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었다. 이날 발언도 그랬다.

"커다란 포럼 장소가 앞부터 뒤까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가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반갑습니다.

"그 어떤 민족 해방 운동도 고분고분 자신의 땅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억압적인 폭정 국가들도 저항에 직면하지 않은 채 순순히 대중에게 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며 더 크게 건설하자는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대표 구호인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Free Palestine!"을 외치며 연대 활동의 지속·강화를 다짐했다.

김승주·신정환

하마스의 무기 지원 호소와 저항의 정치

아랍 통치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친구가 아니다

무장 투쟁으로 팔레스타인 저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1월 둘째 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를 무장시킬 “때가 왔다”고 말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하니예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각국이 점령자(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무슬림 국가들이) 무기로 저항을 지원할 때가 왔다. 이 전투는 단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에 맞서고 서방의 중동 지배를 뒤흔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저항은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다. 팔레스타인 저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제국주의 체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대대적으로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석달 넘게 버티며 이스라엘에게 굴욕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하니예의 호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는 하마스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하마스는 군사적 보복 능력을 원한다.

하니예는 또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값비싼 대가와 학살, 인종 학살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하니예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학살 끝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의 얼굴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해방을 위해서는 군사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대방에게 더 큰 군사적 피해를 입히려는 것만으로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2023년 11월 아랍·이슬람 합동 특별 정상회의. 이들 모두 제국주의 시스템의 수혜자·수호자이다

가져올 수 없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고 그 군대는 미국의 지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집트, 이란 등 하마스가 군사 지원을 호소한 무슬림 국가들도 비슷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예멘, 요르단, 시리아 등 다른 주변국도 하마스의 저항을 도울 군사 및 재정적 역량을 갖고 있다.

중동의 대중 운동

그러나 이 국가들은 모두 제국주의와 경쟁이라는 세계적 시스템에 얽매어 있기도 하다. 일부 나라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한 탄압이 워낙 심해 정부가 주도하는 시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집트 국가 역시 팔레스타인 지지 거리 시위가 정부 비판으로 나아갈까 봐 거리 시위를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요르단에서는 10월부터 대규모 시위와 보이콧이 벌어지고 있

다. 분노가 매우 거센 것은, 1994년에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양국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맞댄 국경을 돌파하려는 시위대를 요르단 정부가 진압한 이유다.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가자지구 [비행기로] 의약품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요르단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4억 2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자국 국경 내에 미군의 주둔을 용납하고 있다.

하마스의 최대 지원국 중 하나인 이란에서는 거리에서 대규모 행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이는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조만간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통치자 대부분이 여태까지 분명한 방식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들 국가의 통치자들이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하마스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중은 그 통치자들에게 속았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하마스의 무기 지원 요청은 아랍 대중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랍의 대중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대중이 들고일어나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에게 라파 검문소를 통해 하마스에게 무기를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엘시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아랍 노동계급이 이런 대규모 저항으로 이스라엘과 자국 친제국주의 통치자들 모두에 맞서는 게 필요하다. 중동 전역에서 혁명적 반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폭탄과 총으로 이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효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으로 가는 길이다.

이사벨 링로즈

출처 Isabel Ringrose, 'Hamas' call for arms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2024. 1. 16) / 번역 강미령

함께 참가합시다



19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일시: 1월 27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식 행진

독일

나치가 수백만 이민자 추방을 모의하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고위 정치인들이 네오나치들을 만나 독일 시민권자일지라도 “독일에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모의했다.

탐사 언론 <코렉티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베를린 인근 한 호텔에서

올해 열릴 중요한 유럽의회 선거와 독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호 정당을 묻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AfD는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민당 등 연정 소속 정당들보다 극우 정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보수 정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만이 AfD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AfD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사민당·기민당 정치인들의 대응은 난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두당 지도자들은 극우의 기반을 잠식할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나치의 모의 내용이 어찌나 역겨움을 샀던지, 사민당은 기민당과의 정책 공조 계획을 도

저히 추진할 수가 없게 됐다.

주류 정치인들이 이민자가 “문젯거리”고 “통제” 대상이라는 생각에 영합할수록 AfD는 약화되기는커녕 더 강력해질 것이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nternational roundup: Trump on top following Republican Caucus – Nazis gather to discuss deporting millions' (2024. 1. 16)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Houthi Media Center

반자본주의 세력이 아니어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후티 후티의 헬리콥터가 홍해에서 서방의 화물선을 공격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홍해 위기

후티 전사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홍해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중동 지배에 대한 도전이다. **유리 프라사드**는 후티 전사들이 세계적 운수·생산 위기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들춰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스라엘이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됐다.

이 해협은 홍해의 남쪽 진입로이고 예멘과 에티오피아를 가른다. 가장 좁은 곳에서는 폭이 불과 30여 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아 영불해협만큼 좁다.

바로 이곳에서 후티 전사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돕고자 상선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시키라고 서방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주 영국과 미국은 예멘에 미사일 수십 발을 날렸다. 홍해 최북단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는 유럽을 아프리카·아시아와 잇는다.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고, 이곳을 통제하는 것은 한 세기 넘도록 제국주의자들의 지상 과제였다.

전 세계 교역의 12퍼센트, 컨테이너 물동량의 최대 30퍼센트가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수에즈 사이를 지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세계 유조선의 5분의 1도 그 곳을 지난다.

그런 곳에서 선박 공격 위험이 늘자 1월 첫째 주 홍해 입구를 지나는 컨테이너선이 2023년 초 대비 90퍼센트 줄었다.

연말연시에 후티는 헬기와 드론 폭탄, 소형 군함, 심지어 대함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상선들을 과감하게 공격했다.

미국이 홍해 일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군대를 순찰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그런 공격을 벌인 것이다.

해운사와 보험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항행을 모두 중지시켰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4개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홍해를 지나는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수에즈 운하를 유럽으로 들어가는 쪽이든 나가는 쪽이든 이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선박들을 남아공의 희망봉으로 돌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 중국 제조업체와 유럽 시장 사이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더 멀어지고 그에 따라 운송 기간도 몇 주 더 길어진다. 이는 운송 비용을 크게 키운다.

이런 부득이한 변화는 더 광범한 해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도록 항로를 바꾸면, 가용 선박과 컨테이너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평상시라면 항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바다에 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를 2주간 이용하지 못하면 유럽 항구들에서 컨테이너의 최대 4분의 1이 연착할 것이라고 해운 분석가 크리스티안 뢰로프스는 예상한다.

해운 차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선박 연료비 상승에, 컨테이너 부족

으로 인한 이용료 상승까지 더해 타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우리가 위기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며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집트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통행료를 낸다. 그런데 이제는 드나드는 배가 거의 없어서 통행료 수입이 곤두박질쳤다.

더 장기적으로는 해운 위기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물자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의 중대한 전략적 약점을 드러낸다.

이 기사가 쓰여질 시점에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를 바라며 예멘을 공격하고 나섰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 이 전략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사실상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충돌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을 키울 것이 뻔하다.

그러나 많은 해운 기업주들은 전쟁이 커질 위험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가격은 계속 치솟을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소유주들의 이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 해운사의 하나인 머스크사의 주식은 지난달에 이미 25퍼센트 올랐다.

▶ 5면으로 이어짐



예멘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 중인 미국 전투기

사진 출처 US Central Command

▶ 4면에서 이어짐

해운 위기는 적시생산 방식 자본주의의 재앙을 키울 수 있다

홍해와 수에즈에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세계 제조업과 체제의 더 광범한 부문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부분의 생산 기업들은 부품과 원료, 연료가 해외에서 제때 공급되는 것에 의존한다. 공급 사슬이 교란되면 생산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중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가 막힌 지금 그럴 위험은 아주 실질적이다.

체제의 이런 취약성을 키우는 데 일조한 것은 1980년대에 자리 잡은 “적시 생산” 방식이다.

적시 생산 방식은 1950년대 일본 도요타의 임원이었던 다이이치 오노의 아이디어였다.

오노는 적시 생산 방식을 “낭비”를 줄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때 “낭비”는 부품 재고와, 그 재고를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하고 운반하는 노동자를 뜻했다.

자동차 부품 매입·보관 비용을 위해 노동시간, 창고 공간, 비용을 들이는 대신, 도요타의 각 공급업체들은 조립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부품을 공급하도록 요구받았다.

오노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지배적이 됐고 이후 전 세계 제조업체들로 확산됐다.

기업주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운송해 와서 재화를 만드는 방식이 환경에 끼칠 영향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생산물을 빠르게 운송하려면 막대한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국가를 끌어들었다.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항구를 더 깊게 만들고, 활주로를 증설했다.

그 효과는 양면적이었다. 처음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으로 엄청난 이윤을 냈다.

기업주들은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대한



사진 출처 Bernard Spreag, NZ (블라카)

공급 차질 후티를 아무리 두들겨도 제2, 제3의 후티가 나올 것이다

호황을 낳았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은 살아남으려면 적시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새 방식에는 엄청난 약점도 있었다.

적시 생산 방식은 공급 사슬의 어느 일부라도 불능 상태가 되면 이에 대응할 여지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각종 거대한 사건이 그런 불능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큰 전쟁이나 환경 재앙도 그렇고, 공급 사슬 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멈출 경우에도 그렇다.

그런 일이 닥치면 생산 전체가 멈출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모든 좌파가 새로운 생산 방식 때문에 공장 파업은 이제 소용없게 됐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이 싸울 자신감이 없는 것을 잠재력을 잃은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오히려 적시 생산 방식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힘은 더 커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진 주요한 파업들은 일부 전

문직만이 아니라 공장 전체도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지난해 전미자동차노조의 파업은 주요 3사 노동자의 작은 일부만 참가했고 기간도 몇 주에 그쳤다.

그러나 그 파업으로 그해 미국의 자동차 총 생산량이 10퍼센트 이상 줄었고 노동자들은 요구의 적어도 일부를 쟁취했다.

부품이 바닥날까 봐 기업주들이 우려한 것이 노조가 성과를 낸 한 요인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시 생산 방식의 취약성을 더 크게 경고한 사건이었다.

영국 정부가 보건 노동자들의 보호 장구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적시 생산 방식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장관들은 가운과 장갑, 마스크가 필요해지기 며칠 전에 중국 제조업체에 주문해서 영국으로 가져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관들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보관 시설을 모두 없앴. 모두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이를 따라 했다. 그런데 정작 팬데믹이 닥쳤을 때 중국은 보호 장구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었다.

영국에서 보건·돌봄 노동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제대로 된 보호 장구 없이 일해야 했고, 많은 이들은 되는데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위험에 대처해야 했다.

보호 장구 부족은 영국이 선진국 가운데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의 하나다.

아직 홍해 위기의 심각성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공급 사슬에 줄 타격도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후티의 선박 공격과 서방의 미사일 공격은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지금 체제가 망가지는 모습은 전쟁 위기와 경제 위기, 환경 위기가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출처 Yuri Prasad, 'Red Sea battle is a threat to the system' (2024. 1. 16) / 번역 김중환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보스 참석 지배자들이 밀레이의
극우 시장주의 연설에 찬사를 보내다

심중팔구 올해의 가장 역겨운 정기 행사는 매 1월 스위스 다보스 스키 리조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일 것이다. 그 행사는 부유한 기업인들과 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학자와 언론인들 따위가 으스스대고 인연을 맺는 자리다.

지난주에 열린 그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계경제포럼의 대표 구호에 잘 요약돼 있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경제포럼.” 다시 말해, 돈과 덕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뛰어난 언론인이었지만 요즘은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기업인 축제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텃은 다보스에 모인 기업인들이 인공지능과 지속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인공지능은 더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의 새로운 원천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심중팔구 한갓 몽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모두가 말로만 지지하는 ‘넷제로’ 경제 전환은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광물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텃은 이렇게 전한다. “다보스 포럼에는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대거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들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주요 광물들이 매장돼 있음을 지적하는 데 열심이었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둘러싼 쟁탈전이 제국주의적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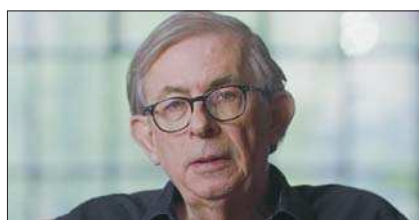
전기톱

그러나 이런 자기만족적인 미덕 과시의 향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지난주의 중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의 연설이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취임한 밀레이는 스스로를 “아나키즘적 자본주의자”라고 부른다. 밀레이는 선거 운동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며 공공지출 삭감 의지를 과시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존경 어린 말로 밀레이를 소개했다. 슈밥은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에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있다고 찬양했다. 흥미로운 얘기다. 왜냐하면 현재 밀레이의 부통령 빅토리아 비야루엘은 1976~1983년 동안 3만 명을 살해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는 아르헨티나의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지배자들은 비현실적 주장이었어도 그의 연설에 찬사를 보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밀레이는 시장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아서 작동하도록
내버려둔 시장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군부 독재의 명예를 되찾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이기 때문이다.

다보스에서 밀레이는 이렇게 선포했다. “서방 세계는 위험에 처했다. … 서방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자들이 사회주의, 따라서 빈곤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포섭됐기 때문이다.” 밀레이는 경제 진보의 유일한 원동력인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집단주의”에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집단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뜻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을 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 5명은 2020년 이래 자신의 부를 두 배로 늘렸다. 반면, 5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 이것은 전혀 사회주의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사는 친구가 내게 강조했듯이 밀레이는 결코 멍청한 자가 아니다. 다보스에서 밀레이는 자유시장주의적 우파의 관점에서 주류 경제학을 논리 정연하게 비판했다. 예컨대 밀레이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사상에 기초해 시장은 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밀레이는 주장했다. 그리고 오직 국가에 의한 “강제가 있을 때에만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불안정과 침체는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위기는 급진적인 규제 완화의 시기, 즉 국가가 후퇴한 뒤에 시작됐다. 알아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 시장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밀레이의 연설은 분에 넘치는 찬사를 받았다. 영국의 우파 경제 역사가 니얼 퍼거슨은 밀레이의 연설을 두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 경제를 탁월하게 옹호했다”고 칭찬했다. 이런 반응들은 밀레이의 정책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의 폐소화를 달리로 대체하겠다고거나 중앙은행을 “폭파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해야 했다.

금융 추락 이후 20년에 접근하고 있는 지금 세계경제는 오히려 국가의 지원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고 있고, 팬데믹과 기후 혼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갈수록 취약해졌다. 밀레이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 유지 장치를 박살내자는 것이다. 이런 공상적인 연사가 — 거기에 더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맹공격이 —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고 있는 체제에서 득을 보는 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번역 이원웅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까지 빚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제가 거절했다.] …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20년간 윤석열의 검찰 내 최측근이었다. 윤석열은 자신이 밀어서 여당 대표가 된 김기현을 반강제로 사퇴시키고 한동훈을 대타로 앉혔다. 자신의 대리인으로 말이다.

둘의 이런 관계 때문에 심지어 일각에선 음모론도 나온다. 한동훈을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소라는 것이다.

음모론일 뿐이다. 음모론은 특정한 대중 정서를 놓친 채 소수 엘리트들의 행동과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 20년 측근 한동훈이 윤석열의 약점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위기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여 준다.

뇌물수수

그렇게 취약한 윤석열이 고의로 권력 투쟁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음모론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가 권력 투쟁의 진양지가 된 채로 총선을 치를 순 없으므로 일단 충돌이 틀 만에 충남 사천시장 화재 복구 현장에서 봉합 모양새를 연출했다.(사진)

그러나 이번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늘에서 총선을 치러서는 승산이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

그런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까? 설사 차별화에 성공한다 해도 그 효과는 결국 윤석열 레임덕일 것이다.

이제 취임 2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빠른 위기는 그 위기의 근저에 깔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윤석열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친미·친일 외교 노선을 통한 경제 회복과 안보 위기 해소 시도, 개혁 압력의 와해를 노렸다. 하지



총선 때문에 여권 지도부는 이들 만에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봉합에도 부패는 총선 후에 더욱 끓을 것이다

만 위기 해소는커녕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오히려 여권의 단일 대오다.

한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미국의 핵심 경쟁국과 깊게 통합돼 있고, 안보 문제도 제국주의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가 노골적 친미·반북 노선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위기가 전이됨).

미국은 한국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 한국을 차갑게 대하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나 북한 압박 실패도 이 상황의 반영이다.

윤석열이 친미파 박진의 후임으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한 조태열은 취임 전,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필요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과 차별화하려 하면 오히려 모순만 더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권위주의적 언사를 조심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을 위한 각종 개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그럴 것이다. 그것이 지배계급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인기 없는 정부가 인기 없는 정책들

을 추진하려니 정치적 통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것,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포털 편집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방송 장악을 위한 각종 언론 탄압, 권위주의적인 마약과의 전쟁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해 미수 테러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안 비치는 냉담함, 노골적 은폐나 다름없는 경찰 수사도 우파의 최근 히스테리적 상태를 보여 준다.

정치적 통제

1월 22일 진보당·정의당·민주당·기본소득당이 강성희 의원 사태에 대처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항은 원내 대응에 한정돼 있다. 온통 선거를 위한 존경 받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의 공조로 실질적 항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이로운 일만 시킨다며 윤석열 퇴진 요구와 거리를 두던 좌파 정당들은 최근에 개혁 입법을 위한다며 정작 대중 투쟁보다 민주당에 의존해 왔다. 그중 일부는 의식도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로 얻으려 한다. 선거에는 도움

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은 조합주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내는 일이다.

좌파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편으로 의식 확보는 절실하니 민주당과 의식 거래를 하려는 실용주의적인 “연합 정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퇴진 집회가 민감한 정치 현안들을 두루 다루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엔 이 운동에 참가하는 주요 정치단체들이 총선 심판론으로 기울면서 위세가 약해졌다.

김문성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하마스 제거 실패로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분열하다**

★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기습을 부리는 이스라엘 테러**

★ **레닌 사망 100년
레닌과 민족 해방, 혁명을 위한 투쟁**

★ **혁명 정당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 **총선 앞둔 범죄파 진영의 연합정치**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치적 이슬람

시문 아사프 레바논계 마르크스주의자,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 만슈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이 기사는 1월 1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영상은 본지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위의 QR코드)



지금은 많은 아랍인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인종 학살은 두 가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댕기고 있습니다. 둘째, 무기력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 둘은 매우 폭발적으로 결합되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후] 102일 사이에 드러난 한 가지 변화는,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통용되던 관념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권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갈등은 종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서방의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유대-기독교 전통이 본질상 진보적인 반면, 이슬람 이데올로기는 그보다 훨씬 후진적이다'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관념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담론에도 깔려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 이란 정권 또는 서방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유사한 세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슬람교에 내재한 특정 관념 때문에 폭력적인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담론이 서방의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슬람주의 단체인 하마스는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운동을 이끌고 있고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랍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는 매우 첨예한 쟁점입니다. 이슬람교와 이슬람주의 운동의 본질, 그리고 그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저항 운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주의에 매우 반동적인 관념이 몇몇 있긴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양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여성의 사회적 구실, 섹슈얼리티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아랍 좌파들은 이를 두고 매우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한편,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아랍의 많은 좌파가 이슬람주의를 파시즘의 한 형태로 취급합니다. 이런 '이슬람-파시즘론'은 이란 혁명으로 호메이니의 이슬람주의 운동이 부상한 이후 널리 퍼졌는데, 이 때문에 어떤 좌파는 이슬람주의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민족주의 정권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특정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적 배경을 봐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정 사상을 이해하려 할 때 그 사상의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관념을 역사의 추동력으로 여기는 관념론자들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입니다.

관념론자들은 이슬람교 경전인 꾸란이나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의 구절을 인용해 이슬람주의가 본질적으로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임을 증명하려 하고, 기독교 경전(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진보적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핵심 과제는, 이슬람교를 비롯한 일체의 종교적 관념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으로 종교적 관념이 허물어지면 모종의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역겹고 반동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라, 성경을 뒤져 가장 역겹고 반동적인 구절을 찾아내는 것이 일종의 놀이였습니다. 여성 노예를 강간하는 내용, 특정 부족을 인종 학살하는 내용, 서로 다른 재질의 옷을

같이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내용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유념할 것은, 성경이든 다른 어떤 종교 경전이든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호함 덕에 읽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종교적 관념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떤 식으로 조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억압자인 노예 소유주들의 기독교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흑인 교회들의 기독교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두 기독교가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급 기반

그래서 특정 이슬람주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그 운동의 계급 기반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마스의 계급 기반은 무엇인가?' '헤즈볼라의 계급 기반은 무엇인가?' '사우드 왕가의 와하비즘의 계급

▶ 9면으로 이어짐



1979년 이란 혁명은 이슬람주의의 부상을 예고한 세계적 사건이었다

사진: Wikimedia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강점을 증식시키고 반대하는 헤즈볼라. 2000년 5월

사진 출처: krametel.ir

이란, 무슬림형제단, 헤즈볼라, 하마스 ... 다양한 이슬람주의 운동

▶ 8면에서 이어짐

기반은 무엇인가? '무슬림형제단의 계급 기반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이들이 서로 매우 다른 운동이고 대변하는 바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는 여성의 행실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고등수학 등 가장 어려운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 중 약 7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슬람이 여성의 교육에 대해 더 진보적이라는 증거일까요? 혹은 더 반동적이라는 증거일까요?

사회적 맥락과 떼어 놓고 경전의 문구만 보서는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물질적 조건에 비춰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슬람주의 운동이 아니었더라도 식민 지배에 맞선 저항에 동참했을까?'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저는 60살인데요. 제가 자라던 1960~1970년대에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PFLP), 팔레스타인해방군(PLA) 등 다양한 좌파가 활동했습니다. PLO는 아랍 민족주의 단체였고, PFLP는 마오주의 단체였고, DFLP는 체 게바라주의를 자처하는 단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에는 매우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이슬람주의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슬람주의 운동은 75~80년 동안 이어져 온 저항 운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이자 표현 방식입니다.

물론 오늘날 운동에서 이슬람주의 색채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과 팔레스타인의 세속 좌파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상이고,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운동들이 겪은 질곡뿐 아니라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랍 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과정에

서 기존 방식과 계급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이슬람주의 운동이 저마다 다른 사회적 부문과 염원을 대변하면서 시작됐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메이니식 이슬람주의 운동은 이란 혁명 후에 서로 다른 두 계급을 기반으로 부상했습니다.

첫째 기반은 자본주의가 이란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몰락한 전통적 상인 중간계급 '바자리'입니다. 둘째 기반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신생 기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신중간계급입니다. 이 두 계급이 이란 혁명 와중에 서로 융합하면서 호메이니식 이슬람주의 운동과, 뒤이어 집권한 이슬람 정권의 계급적 토대를 이뤘습니다.

즉, 한편에는 자본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는 옛 사회 계급이, 다른 한편에는 토착 자본주의 발전에 쫓겨난 제약에 저항하는 신진 사회 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란에 관해서는 옛 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이 이란 정권의 계급 기반을 이뤘다고 봐야 합니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한편으로는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 지배계급

내 매우 중요한 일부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무슬림형제단은 2011년에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이 분출했을 때 굉장히 겁에 질렸고, 상당히 뒤늦게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형제단이 이 운동의 주된 수혜를 입었죠.

2012년 선거로 집권한 후 무슬림형제단의 전략은 세속적인 아랍 민족주의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이를 이슬람주의적 부자·권력자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혁명을 지속·심화시키기를 바랐던 빈민층 쪽과 혁명을 멈추고자 했던 지배층 쪽으로 말이죠.

레바논 헤즈볼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헤즈볼라는 무슬림형제단과 비슷한 집단일까요? 혹은 이란 이슬람주의자들이나 하마스와 비슷한 집단일까요?

헤즈볼라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레바논 사회 내 시아파 — 시아파는 이슬람의 한 종파입니다 —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아랍 민족주의 좌파들이 패배한 후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레바논에서 숫자가 가장 많지만



하마스가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국가 방안'이 재앙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습격으로 살해당한 이들의 장례식

가장 가난하고, 종단과 종파에 따라 나뉜 레바논 사회의 정치 권력 일체에서 가장 철저히 배제돼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종단과 종파에 따라 분열된 체제에 반대하면서가 아니라, 그 체제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헤즈볼라는 시아파가 압도 다수인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이 20년간 점령한 것 때문에 부상했습니다. 이 지역 인구의 압도 다수가 시아파였기 때문에, 점령에 맞선 저항도 시아파에 기반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군사적 저항을 대체로 시아파가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헤즈볼라는 두 가지를 대변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맞선 군사적 저항. 둘째, 레바논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집단인 시아파의 권익 증진. 그래서 헤즈볼라의 사상과 그 성장을 이해하려면 시아파의 교리를 들여다보지만 해서는 안 되고, 레바논 사회에서 가장 주변적 처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점령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적 성격 때문에 헤즈볼라는, 4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신진 계층인 시아파 중간계급을 점점 더 대변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시아파 중간계급은 더욱 성장해, 종단과 종파에 따라 나뉜 레바논 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마스는 헤즈볼라와는 또 다릅니다. 각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과 인종 학살에 맞선 처절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하마스가 어떻게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1990년대에 팔레스타인에 강요된 '두 국가 방안', PLO 등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수용한 이 방안이 기만에 불과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재앙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치적 판단이 하마스의 부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마스가 수니파이고 하마스의 이데올로기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 지배 계급의 와하비즘과 하마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둘은 역사적 뿌리와 계급 기반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민족 해방 운동입니다.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을 민족 해방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 그들의 사상을 논합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결코 민족 해방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의 와하비즘은 기반이 매우 협소하고 억압적인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이자 사우디아라비아 대중을 억압하는 도구입니다.

추천 글과 책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이슬람 사례를 중심으로 | 최일봉, 〈노동자 연대〉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 탈라트 아흐메드, 〈노동자 연대〉

무슬림·이슬람교 혐오는 인종차별이다 | 최일봉, 〈노동자 연대〉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 크리스 하먼, 책갈피, 128쪽, 4,900원



하마스·헤즈볼라, 민족 해방 운동으로 이해해야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민족 해방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취하는 전략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피억압자들을 대변하고 식민 점령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맞서는 세력들과 타협하려 드는 문제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슬람주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비롯합니다.

예컨대 헤즈볼라를 봅시다. 애초에 헤즈볼라는 레바논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대변하며 부상했지만, 오늘날 헤즈볼라는 시아파 중간계급을 위해 더 많은 정치 권력을 얻어 내려고 레바논 사회 시스템과 타협합니다.

그런 타협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레바논에서 종단과 종파에 따라 나뉜 사회 체제에 맞선 항쟁이 벌어졌을 때, 헤즈볼라는 반동적 구실을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를 도와 대중 운동을 진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죠.

하마스는 어떨까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안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매우 전투적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아랍 정권들에 맞서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마스가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다른 나라를 굳이 흔들지 않고 그 나라 정권과

잘 지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에 PLO가 취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보기에 아랍 좌파들 사이에서 요즘만큼 하마스 지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 때도 없었던 듯합니다. 하마스 지지 여부는 그들에게 언제나 첨예한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마스 지지를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발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슬람주의를 이해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사상 그 자체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그 사상이 존재하는 사회 조건이 어떤지, 그 사상이 대변하는 계급이 누구고, 그 계급이 품은 열망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단일한 이슬람주의 사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범한 의미의 이슬람 이데올로기는 있지만, 저마다 다른 사회 계급이 저마다 다른 사회적 조건하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슬람교를 이용합니다.

물론 사상에는 사회적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사상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이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대변하는지이고, 그 사상이 해방 투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입니다.

통역 천경록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 지원금(1억 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 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양당의 대책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색내기 수준인 국민의힘 공약보다 민주당의 공약이 좀 더 실질적이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에 비하면 민주당의 공약도 크게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요인들로 높은 주택 비용, 치열한 입시 경쟁,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불안정, 여성의 큰 돌봄 부담 등을 꼽는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고, 종이 제 머리 못 꺾는다고 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생 대책 재정 마련은 미흡하고 보수적 가족 가치관을 뒷받침한다

배계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이윤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고 공공돌봄을 축소해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물론 지배계급은 노동력 부족과 병역 자원 감소를 크게 우려해 출생률을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 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신의 공약 이행에 각각 3조 원과 28조 원이 매년

들어간다고 추산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간이나마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세금을 매겨 재원을 충당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서민층이 아니라 부유층에 과세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비혼 출산을 차별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대부분의 혜택을 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

층의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비혼 출산 지원 요구도 늘어왔는데, 양당의 대책은 이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열 명에 세 명 정도에 그쳤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늘었다.

비혼 출산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하며, 출산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배계급 정치인들의 저출생 대책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부정하며 보수적 가치관을 퍼뜨린다. 윤석열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려 하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려 한다.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다수당이면서도 임신중단권 입법화를 계속 회피해 왔다.

주류 정치권과 언론들은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

저출생이 아니라 커다란 빈부격차와 실업, 주택난, 긴 노동시간, 경쟁 교육, 여성 차별 등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정진희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제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더 많은 것은 고소득층의 자식들이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 다니는 대표적인 특권학교다. 고소득층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뒷받침을 받으며 특권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기 쉽다.

반면, 노동자 등 서민층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 뒷받침을 얻기 어려운데다, 운 좋게 입학할 만한 성적이 된다고 해도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학비라는 장벽에 가로막힌다.

특권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른바 명문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입학한다. 반면, 서민층 자녀들의 대부분은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나와 대학 서열이 낮은 대학을 가거나 조기에 취직을 해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노동자가 된다.

국제중-자사고·특목고·국제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서열화 구조 속에서 교육이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수단이 돼 온 것이다.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경쟁과 차별을 강화하고,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2022년)를 보면, 한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습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

지배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민층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릴 뿐 아니라, 중등교육의 위계적 분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선택된’ 학교와 학생에 자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정부는 일반고보다 특권학교에 월등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하며 우대해 왔다.

특권학교 존치에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

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2025년으로 미뤘다. 윤석열 정부가 특권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더 준 것이다. 당시 본지는 차기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당시 사실상 특권학교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지지했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금껏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비판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원죄’와도 관련있을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권학교의 절반가량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데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계급 차별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이현주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김현옥 고등학교 역사교사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9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 권력 찬탈을 노린 ‘하나회’ 일당이 전두환(전두환)의 계획 하에 정상호(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일단 체포한 뒤, 하극상을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대통령(최규하)에게 재가를 받으러 가는 9시간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면 꼭 관람하기를 추천한다.

영화 속 전두환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가. 이는 사실 검찰이 1995년 7월 18일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유혈 진압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목이 터지도록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라”고 외치며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 결국 우리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다.

배신적이게도,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국민 화합의 명목으로 2년여 만에 사면했지만 말이다. 노무현 정부도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취소하긴 했으나, 무궁화대훈장 수훈은 박탈하지 않았다. 현재 무궁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 10만이 모인 신군부 성토 대회

대훈장 추탈 촉구 10만 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전두환은 결국 죽어서도 무덤을 갖지 못했다. 죽은 지 1년 동안 매장을 못하다가 최근 전두환 유족들이 파주에 유해를

묻을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쿠데타와 광주 학살, 군부 독재,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편히 잠들 곳은 없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주자 시절 윤

석열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애써 두둔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중 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은 전두환의 ‘정치’의 핵심이다.

1979년 부마항쟁과 10·26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알기 위해서는 박정희 사살 사건인 10·26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이날 궁정동 술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두 사람 외에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계원 비서실장이 있었다. 이야기의 핵심 화제는 부(산)마(산)항쟁과 앞으로 서울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저항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죽음을 가져온 직접적 계기가 됐다. 1979년 10월 16일 ‘유신대학’의 오명을 쓴 부산대에서 학생들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학생들의 시위는 그동안 고통받아 왔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퇴근하는 노동자와 도시 하층민들이 “부가가치세 철회하라,” “언론 자유”를 외치며 대거 참여했다. 학생 시위는 순식간에 민중 항쟁으로 발전했다.

17일 아침 일본 언론들은 16일의 부산 시위가 민중 봉기의 성격을 띠고 있

다고 보도했다. 부산에서 유신 체제 철폐를 주장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절정에 이르렀던 10월 17일 저녁, 청와대에서는 유신 7주년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권은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위는 이미 마산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마산 시위는 그야말로 김재규가 말한 대로 민란에 가까웠다. 파출소나 관공서뿐 아니라 부유 상점가, 고급 주택가들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민란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이 사태는 계급 전쟁의 요소가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할 정도였다. 당시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창원공단의 현대양행 노동자들도 10여대의 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시위에 참여했다. 유신 정권은 20일 마산에도 위수령을 선포해 잔인하게 진압했다.

부마항쟁의 불길이 인근 대구로 북상할 조짐을 보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때 10·26이 발생한다.

부산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방문한 바 있었던 김재규는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60명 연행자 중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구호를 보니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습니다” 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재규는 부산 시위 사태가 대중 봉기의 성격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서울에서 4·19와 같은 데모가 일어난다면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대통령인 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경호실장 차지철도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 캄보디아에서처럼 200~300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진다”고 맞장구 쳤다.

유신 체제 7년 동안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박정희는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반면, 김재규는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마항쟁이 지배계급의 분열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다고 강조하지만,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체제를 구하려 했을 뿐이다.

김재규는 박정희와 같은 육사 2기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시위 때는 이를 진압하는 서울지구 계엄부대장이었다. 박정희의 최측근만 역임한다는 보안사령관을 거쳐 1976년부터는 중앙정보부장으로 활동했다.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1979년 8월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킨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명령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했다.



(위)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마산역 앞 전투경찰과 싸우는 시위대
(아래) 쿠데타 성공 후 기념 사진을 찍은 전두환 등 신군부 실세들

신군부의 부상과 쿠데타

사람들은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유신의 심장’이라 표현한 독재자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는 신군부 체제로 이어졌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하나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전두환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는 1961년 말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조직됐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현역 대위로서 육군사관 생도들의 5·16 지지 시위를 조직해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다. 박정희는 하나회 회원들에게 특전을 베풀며 친위 세력으로 키웠다. 박정희는 1979년 1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보안사령부가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흡수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지휘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월,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최규하가 대통령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에 있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었

던 정승화가 긴급조치 폐기, 김대중 복권 등 유신 완화 정책을 취하자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과 하나회 군부 세력은 위기감을 느끼는 한편, 불만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박정희 피살 사태에 정승화가 연루됐다는 핑계를 내세워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다루는 핵심 장면이다.

12·12 쿠데타가 발발한 다음 날 글라이스틴은 “우리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겪고 있다. 민간 합헌 정부는 명목상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징후는 군의 중추기관들이 일단의 야심적인 젊은 장교들에 의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장악됐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을 중시하며 관망하던 미국은 곧바로 새 군부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도 전두환 정권 초기 40억 달러를 융자해 줌으로써 전두환 정권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줬다.

고개 든 노동자·학생 저항과 광주항쟁

영화가 제목으로 상징한 다른 그림이 있다. 바로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담아 1979년 10월 26일에서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7일까지의 시기인 ‘서울의 봄’이다.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1968년 소련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체코 민중의 저항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말이다.

10·26을 계기로 유신 체제에 억눌려 왔던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출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이후 곧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핵심 이유일 것이다. 역사학자 서중석 교수는 “5·16 쿠데타나 다른 지역 쿠데타와 달리 전두환과 신군부는 왜 2단계 쿠데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12·12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는 대세가 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사망 후 유신 체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대학생들은 학생 활동의 완전한 자율화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했다. 10·26 이후 최초의 학생 시위가 11월 22일 서울대에서 벌어졌다. 학생들은 “유신 체제 완전 철폐”와 “조기 개헌”을 외쳤다. 11월 24일에는 재야 민주화 세력인 민주통일국민연합이 주도해, (유신헌법에서 설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YWCA 위장 결혼식’도 열렸다.

최규하가 여전히 유신헌법 아래서 12월 6일 체육관 선거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곧바로 긴급조치 9호 해제와 김대중 연금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어 긴급조치 관련자 561명이 특별사면됐고, 1130명이 석방됐다.

물론 언론·출판·집회·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비상계엄은 해제하지 않았으며, 일명 ‘K-공작’으로 불리는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오히려 강화됐다.

1980년 봄이 다가오자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저항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밑바탕에는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깔려 있었다. 1976년 14.1퍼센트까지 성장한 경제가 1979년에는 오일쇼크까지 겹쳐 6.5퍼센트로 하락한 상황은 박정희 죽음의 한 배경이었다. 1980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마이너스 5.2퍼센트로 폭락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노조 건설과 기존 노조 민주화, 임금·근로조건 개선, 체불 임금 지급, 휴·폐업 반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투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노동운동이 급격히 분출했다.

경제 위기

1980년에 들어서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809건에 달하는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이는 1979년 1년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의 8배이며, 유신 시절 전체 파업 수보다도 많았다.

4월 21일 강원도 사북에선 탄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지도부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사북면 전체를 장악했다. 계엄군 투입까지 고려될 정도였다. 부산 동국제강 노동자 1000여 명도 임금 문제로 본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일신제강, 동명목재, 인철제철 등지에서도 파업이 잇달았다.

3월 새학기에 제적 학생 759명이 복학됐고, 해직 교수 19명이 복직됐다.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학생회가 부활되고 학도호국단이 폐지됐다. 유신 정권이 억압했던 학생 자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4월에는 전국 대학에서 “학원 자율화,” “어용 교수 퇴진,” “교권 확립”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병영집

▶ 14면으로 이어짐



1980년 사북항쟁 당시 철로를 막은 광원과 그 가족들

▶ 13면에서 이어짐

체 훈련 거부 투쟁도 일어났다.

저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4월 30일, 계엄사령부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노동 문제, 학원 소요, 일부 정치인의 정치 집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기존까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겸직을 맡게 된 것과 궤를 같이 했다. 이제 전두환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을 운영할 뿐 아니라 국방장관을 제치고 군부를 장악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학내 문제에 집중했지만 전두환의 집권 음모가 명백해지자 신군부에 대항한 항의 시위에 나섰다. 대학생들은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직선제 개헌” 등의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35개 대학 학생들과 시민 등 10만 명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1980년 봄의 민주화 운동은 서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의 학생운동 지도부는 군 병력을 실은 트럭과 장갑차들이 효창운동장에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대중과 김영삼 등 자유주의 야당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시위가 더 확산되면 신군부에게 쿠데타 명분을 준다”며 자제하라고 호소했다.

이미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14일



신군부가 짓밟은 광주 항쟁은 1987년 항쟁의 밑거름이 됐다. 1987년 거리 시위에 나선 대우 거제조선소 노동자들

에 육본 작전참모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요 진압 본부를 설치하고 전군에 소요 진압 부대 투입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신군부는 북한의 위협, 경제 파국 논리 등의 온갖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 미국 국방부도 13일에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도왔다.

5·18 광주 항쟁 직전까지도 김대중과 김영삼은 시국수습 6개항을 발표하면서 평화 유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을 오히려 내란 혐의로 구속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5월 17일 제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는 소위 ‘5.17 2단계 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군부 통치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마치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항쟁의 저항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두환은 광주 민중의 처절한 항쟁에 맞닥뜨려야 했다.

“우리가 저들의 총탄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패배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죽음으로 저항했던 광주 항쟁 지도부 윤상원의 말은 7년 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부활했다.

📖 추천 책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 640쪽, 28,000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① 노동자 연대 @wspaper
②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58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영화평 | 〈나의 올드 오크〉

용기, 연대, 저항을 복돋는 켄 로치 감독의 신작

켄 로치 감독이 단짝 동료 폴 래버티(각본)와 함께 영화 〈나의 올드 오크〉로 돌아왔다.

거의 네 번째 은퇴작이다. 은퇴를 계속 반복하는 건, 식을 줄 모르는 예술적 열정과 정치적 끈기 덕분일 것이다.

〈나의 올드 오크〉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와 함께 “잉글랜드 북동부 노동계급 3부작”이라 불린다.

〈나의 올드 오크〉의 배경은 광산이 몰락하고 긴축 정책으로 불행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낙후된 노동계급 거주지다. 〈빌리 엘리어트〉의 배경이기도 한 더럼 카운티에서 촬영했다.)

그곳으로 이주하는 시리아 난민의 흑백 사진을 통해 영화가 시작된다.

시리아 난민과 영국 노동계급

버스에서 내리는 난민들을 맞이하는 것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축구팀(잉글랜드 북동부 축구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했다) 유니폼을 입은 남성의 욕설과 괴롭힘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올드 오크’ 펍의 운영자 TJ가 중재하려고 한다.

난민들은, 2011년 ‘아랍의 봄’의 일부였던 시리아에서 혁명을 분쇄하려는 정부의 탄압과 공격, 제국주의 국가들의 술책과 폭격 때문에 가족과 집을 잃고 쫓겨 왔다.

이들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영국의 가난한 노동계급 사람들도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 모두에게서 수십 년간 일자리, 교육, 연금, 복지를 빼앗겨 온 사람들이다.

잔인함, 박탈감, 굶주림, 트라우마가 양쪽 모두를 괴롭힌다.

하지만 일부는 이주민과 무슬림을 문제이자 문제의 원인으로 여긴다.

다른 가능성과 전통도 있다. 연대, 동지, 용기, 협력, 저항.

켄 로치 영화답게 스타 시스템을 거부하고 아마추어 연기자들로 가득하다.

켄 로치는 배역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아 배역을 맡기는 데 탁월하다.

난민 구호 활동가 로라 역은 비슷한 이력의 활동가가 연기했고 난민 역은 북동부 지역에 이주해 사는 실제 난민들이 연기했다.

TJ를 연기한 데이브 터너도 전문 배우가 아니다. 30년 경력의 소방관이자 노



영국 노동계급과 시리아 난민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 〈나의 올드 오크〉의 한 장면

켄 로치의 영화들은 흔히 불명확한 결말을 반복한다.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 영화 안에서 가공의 만족을 찾지 말고 영화 밖 현실에서 행동하라

조원이었고, 은퇴한 후 펍에서 일했다.

TJ의 친구이자 동지가 되는 시리아 난민 아라 역을 연기한 에블라 마리는 실제 난민은 아니지만(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 중인) 골란고원에서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시리아인이다.

영상과 사운드, 줄거리와 이야기 구조 역시 간결하고 담백하다. 세 번의 흑백 사진 몽타주, 작은 규모의 이야기와 반전 하나들, 강렬하지만 짧은 대화 시퀀스 몇 개를 가지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특히 켄 로치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거의 꼭 그랬듯 이번에도 왜 어떻게 노동계급이 자기편에게 “배신”당하는지 직시한다.

요컨대, 우리 안의 편견과 분열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끝도 없이 편견과 분열을 조장한다. 혐오와 차별과 분열을 우리 안의 본성(유전자에 내재된 것)이라 여기길 원한다.

반면, 개인과 집단의 생각을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투쟁의 경험이다.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아라와 TJ에게 분열 대신 연대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도 1984~85년 광부 파업의 기억이다.

당시 대처 정부는 패배의 코앞까지 내몰렸다. 절벽 끝에서 정부를 구한 것은 연대를 거부하고 대가를 거래한 노조 지도

자들이었다. 파업 30년 뒤 공개된 대처 정부의 비밀문서들에서도 확인된 바다.

패배했지만 위대했던 광부 파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영화가 보여 주듯이 그런 영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주류 영화는 흔히 과거를 닫혀 있는 것으로 다룬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는 닫혀 있거나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자극함으로써 계속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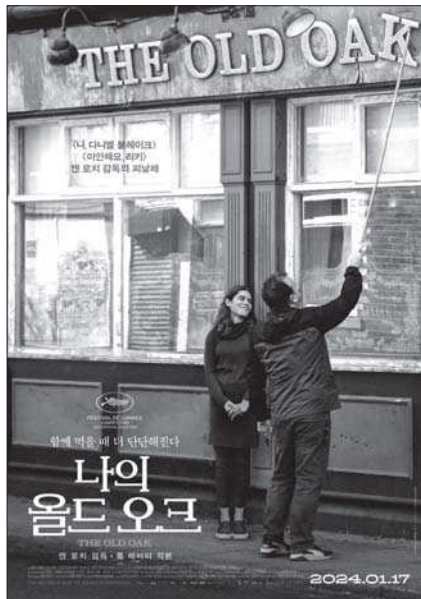
반면, 켄 로치의 영화들은 흔히 불명확한 결말을 반복한다.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 영화 안에서 가공의 만족을 찾지 말고 영화 밖에서 현실의 행동을 하라.

중첩된 위기(전쟁 · 기후 · 경제 · 세계 위기) 속에서 주류에서 비주류까지 우파들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좌파들은 한층 더 무기력해졌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가에서 극우가 성장했다.

그렇지만 세계는 단일하게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양극화한다. 양극화에는 다른 한 쪽 길이 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의 성장을 보라.

영국 노동계급과 시리아 난민의 연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그래서 지금 더 적절하다.

김현진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학부모 수요가 크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1학기에는 전국 2000여 개 학교,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6175곳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돌봄을 늘리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2004년부터 실시된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이 많아,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가피하게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방과 후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며(이른바 '학원 뽕뽕이') 돌봄 공백을 메워야 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은 돌봄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학교 안에 머무는 게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나 새 학년 개학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 시행을 위한 추가 인력과 시설, 재정

확보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2024년 초등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3개월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왔다. 하지만 새 학기 직전까지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늘봄학교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운영 업무를 현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혀 반발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에게는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다가 결국 정규 교사들에게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다.

이런 뽕뽕식 대처는 채용된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양질의 돌봄도 보장하지 못하게 한다.

지난해에 시행된 늘봄학교 시범학교 200여 곳에서는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각 학교가 급하게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했고, 그래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결국 정규 교원들이 메워야 했다.

늘어나는 돌봄 업무는 돌봄전담사들

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돌봄전담사 확충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많은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거둬진 요구에도 돌봄전담사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지 않고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 노조들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앞서 정부가 인력 충원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무 가중

이처럼, 정부는 늘봄학교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교육재정을 7조 원 가까이 삭감했다. 교원 정원도 줄이고 있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늘봄학교까지 하라고 하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나 초등교사노조, 교사노조 같은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사와 학교에 업무 가중을 부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해 4차례 집회를 하고 1월 17일 늘봄학교 강행 중단 기자회견을 한 전교조는 1월 19일에도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 배제,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배치,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 지원센터 설치, 늘봄 겸용교실 금지 등의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1월 15일부터 천막 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도 1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교사 집회를 연다

는 계획이다.

많은 교사들은 제대로 된 정부 지원도 없이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것에 불만이 크다. 그래서 상당수 교사들은 늘봄학교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 천막 농성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돌봄 지자체 이관이고, 전교조도 오랫동안 "돌봄을 학교와 분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늘봄학교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 확대를 원하는 노동계급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게다가 지자체가 돌봄을 맡으면 민간위탁이 늘어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돌봄전담사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1월 23일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원단체들의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요구가 "공공 돌봄"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돌봄 업무까지 맡게 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정규 교사와 돌봄전담사, 공무원들이 서로 탓하며 갈등하는 것은 정부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라며 단결해서 투쟁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초등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함께 연대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업무 경감과 양질의 돌봄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강동훈